데스크시각

김 일 환

학교가 학원을 꼭 이겨야 하는 이유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이다. 고교 1학년의 아들을 두고 있는 이모씨는 평소 맞벌이로 아들의 공부를 잘 챙겨 주지못해 학원이라도 보내볼까 하고 수소문하던 중 주변 학부모로부터 광주 북구의 유명한 영·수 전문학원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이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생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집중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단시간에 올려준다는 것은 이학원의 자랑거리다.

이씨가 소개해준 이로부터 등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학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당황의 연속이다. 등록만 하면 다니는 줄 알았던 학원은 소위 레벨 테스트라는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을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학기 특강반, 특목고반은 모집이 끝났으니 몇 개월 기다렸다 자리가 비면 연락을 준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제조건은 학생이 레벨 테스트에서 기준점을 넘어야 한다는 것.

레벨 테스트 요구하는 학원

이씨는 학원정보에 너무 어두웠던 자신이 부끄럽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 사교육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충격적 일줄 몰랐다고 씁쓸해 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소위 '봉남' '봉북' 이라 일컬어지며 교육열이 서울 강남 8학군에 뒤지지 않는다는 광주 봉선지구의 학원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수정예를 표방하며 학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또는 고도의 상술로 학생들의 물(?)을 관리하는 학원들은 허다하다.

언제부터인가 학원은 미진한 학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너를 꺾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살벌한 경쟁의 논리만이 존재한다. 수학공식을 풀어내는 기계와 영어 단어를 달달 외워야하는 피곤한 영혼들의 세상이다. 단지 그들에게 학교는 잠시 잠을 청하고 학원 숙제를 하는 곳일 뿐이다.

학부모들은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할 수 없다."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좀 참자." 어르고 달래보지만 정작 당신들은 자식의 고통보다 더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얇아진 월급 봉투를 다시 쪼개 학원비와 과외비로 보태보지만 구겨진 가계부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들다. 더욱이 너도나도 학원으로 몰리다 보니 모두 함께 고단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학원에 다녀 얻은 편익은 미미해지고 가정과 사회의 부담만 늘어났다. 학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연간 20조 원 넘는 돈을 학원·과외비로 퍼붓고 자식 세대를 소모전으로 몰아세운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노동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은 입시 위주의 과잉 교육열이 경쟁력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학원에 목매며 살아온 우리 아이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지 못하고 수동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원시장은 이미 불패의 거대 공룡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절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살아남는다. 학교교육이 살아나지 않는 한 백년하청이다.

그동안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수많은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실행됐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무수한 방법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학원교육을 교실로 끌어 들여보자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학원교육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면 학생들의 학원비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겠느냐는 발상이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교사로부터

그런 점에서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제 시행 전제조건으로 밝힌 우수교사 연구년(안식년)제도 도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화연수 확대 등은 그 내용만을 두고 봤을 때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출발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형식에 있다. 교사들의 능력을 가늠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 잣대를 어떻게 객관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교과부의 태도로 보았을 때 성적 지상주의의 경직된 평가가 될 우려가 크다. 자칫 본말이 전도돼 훌륭한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형식만이 시퍼런 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과부에 감히 제언한다. 학교교육이 살아나려면 교사들이 살아나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투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한다. 그것만이 학교가 살길이다.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키워내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학교는 공부를 시키는 곳이 아니라 창의성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믿는 선생님들이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희망이 된다.

학교가 학원이 될 수 없고 또 거대공룡인 학원을 꼭 이겨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사설

예산 줄삭감에도 시·도-정치권 엇박자라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정치권에 사상 유례없는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추경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어서 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데다 4개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이 겹치면서 예산 따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 확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고 있다. 영남과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아예 상주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은 시·도와 지역 정치권 간 공조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말로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조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예산과 관련해 별다른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의원 보좌진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에 수차례 내년 국고 예산 확보 현황 자료를 요청해도 "최종 확정이 안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다니 지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지역현안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 완공시기가 2012년으로 늦춰지는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SOC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역시 500억원이 삭감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관련 예산은 168억원 가운데 161억원이 미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일부를 SOC 확충으로 돌릴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국고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 부족으로 지역현안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광주 교육평가 최하위권 '실력 광주' 맞나

광주시 교육청이 2008년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평가에서 7개 광역시 중 6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1천점 만점에 649.86을 받아 6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점수는 교육 여건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9개 도(道) 지역까지 합쳐서도 14위에 그쳤다. 이러고도 광주를 '실력 광주'라 할 수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지난 1996년 시작됐지만 16개 시·도 교육청 순위와 성적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학력향상, 교육과정 내실화, 교원역량 강화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 12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해왔다.

광주 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영재·과학교육 내실화, 독서교육·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장임용방식 다양화, 도시 저소득층 학생지원, 청렴도측정 결과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권이었다.

이런 지표는 한마디로 광주 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5년간 대입수능 성적과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에서 전국 1위였다. 그런데도 광주교육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교육평가는 대입만을 잣대로 한 것이 아니다. 초·중·고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교육 환경을 평가한 것이다. 이런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대입 성적도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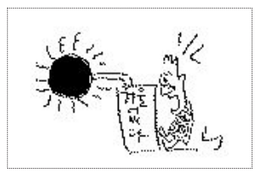
교육의 경쟁력은 바로 그 도시의 경쟁력이다. 광주 교육이 자기 혁신을 등한히 하고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광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우수 교장·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교육에 혁신 분위기를 일으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부산교육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無等鼓

겨울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불과 60~100년 사이에 태백산과 소백산 인근 내륙지역을 제외한 남한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변한다는 관측이 나와 소름을 돋게 한다.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의 최근 보고서다. 아열대 기후는 월평균 기온 10℃ 이상인 달이 8개월을 넘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3~18℃ 이하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금세기 안에 자칫 눈을 볼 수 없는 겨울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혹한빈도가 감소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쉬울 것 없지만, 여름철 불볕더위 빈도가 증가하는 일은 전혀 반갑지 않다.

여기에다 수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역시 어깨를 움츠러들게 한다. 지난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해 1천6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카트리나와 같은 강력한 수퍼 태풍이나, 해수면 온도가 지금보다 2~4℃ 오르면서 영화 '해운대'에서나 볼 수 있는 해일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라지는 겨울'에 대한 공포는 오래전 시작된 상태다. 서남해안에 해파리 떼가 극성을 부리면서 일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그물을 찢어 어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았는가. 농업 분야의 지각변동도 이와 무관치 않다. 농작물 북한계선이 무너지고, 토착종은 외래식물의 침입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보고 듣지도 못한 병해충은 안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해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투자를 요구하지 않은가.

당장 피부와 와닿지 않는다 해서, 기온이 현재보다 2℃만 높아져도 지구상의 동식물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경고를 허투루 넘길 일은 아니다. 겨울이 사라지고, 동식물이 사라지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니까.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송민석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지난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기차여행을 한다. 새마을호를 타고 2시간 남짓 걸리는 여수-전주 간을 오가고 있다. 열차를 이용하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좋다. 열차카페에 앉아 커피 향과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사색에 잠기는 행복을 만끽한다.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반바지 차림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열차 칸을 가득 메운다. 피서지에서 돌아올 때는 열차에 오르자마자 의자를 잔뜩 뒤로 제치고 곤한 잠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갖 수다와 소란으로 귓전이 따가울 때도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유독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들이 새삼 떠오른다.

주위를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주고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 별의별 시시콜콜한 남의 개인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간접통화'의 고통은 '간접흡연'의 고통만큼이나 짜증스럽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먼저, 퍼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 친절, 질서에 앞장서자는 범시민운동이다. 사납금 때문이라 둘러대지만 간혹 지각없는 택시기사들을 볼 수 있다. 정지선에 서 있는 차 앞으로 '내가 먼저, 퍼스트'라고 붙인 영업용 택시가 난데없이 파고들어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쏜살같이 내달릴 때면 떨떠름한 기분이 된다.

거리의 모습은 선진국과 다를 바 없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들이 우리 삶의 천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물질문명에 걸맞은 정신문화가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일 것이다. '선진 시민의식' 운운하면서도 아직도 피난길, 배고프던 시절의 행동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본다. 차장 밖으로 담배꽁초를 스스럼없이 내던지고, 쇼핑몰이나 마트 등에서 고함치듯 호객행위를 하고, 잘 가꾸어진 공원벤치에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볼 때 낯이 뜨겁다. 모두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우리 집은 주변경관이 좋은 허름한 아파트다. 새로 단장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해안의 탁 트인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창한 날이면 소호동 앞바다 '가막만'의 올망졸망 자잘한 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나 가끔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보고 놀라게 된다. 위층 집 이불이 우리 집 베란다 시야를 가리거나 아파트 통로에 쓰레기를 내어 놓는 경우를 볼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사회는 후진국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나라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성숙한 시민사회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공유하는 사회이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사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싶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위촉입학사정관·전 여천고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최정주

녹색성장 실천은 작은 것부터

"인류는 지구가 제공하던 자원을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했고 그것은 인류의 착각이었다."라는 쓸쓸한 독백이 떠오른다. 영화 "투모로우"가 보여줬던 영상은 어쩌면 100년도 채 안되어 나타날 인류의 모습일지도 모르며, 병들어가는 이 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안락함으로부터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산업의 발달을 상징하는 공장의 굴뚝, 내림하천에 떠오른 물고기, 산과 바다에 너부러진 쓰레기와 도시를 꽉 채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들이 망막 속을 흐르듯 스쳐간다. 지구촌의 황폐화와 무질서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반성과 공감을 얻고,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글로벌시대의 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작은 행동을 우선 필요로 한다. 실천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혼자만이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보다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최근 도심 곳곳의 주유소마다 주유 중 엔진정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소방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때 정전기나 엔진 스파크가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휘발유 유증기와 만나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는 3분이겠지만, 그 짧은 시간의 사소한 실천은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운동의 첫걸음이 된다.

시민들의 녹색성장을 위한 의식과 참여는 주유 중 엔진정지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이로부터 연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며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에게 환경은 개인이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재산이기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식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구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환자 중심 '통합진료제' 광주도 도입해야

환자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의사와 병원의 편의대로 진료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큰 병을 앓게 되면 작은 병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치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아야 한다.

석달전에 작은어머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작은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보니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내과까지 아주 다양하게 같이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약을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너무나 불편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들렀는데 거기서는 폐암 환자의 수술을 위해 다섯개 과의 전문의들이 모이여서 한꺼번에 수술계획과 장기 치료계획을 짜고 논의하는 장면을 보았다. 의사들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수술 날짜까지 정해졌다. 이처럼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모이면 환자가 여러 과를 전전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통합진료제를 우리 광주의 병원에서도 도입해서 적용됐으면 한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